

러시아,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 봇물

연해주 석유화학단지 건설에 140억달러 투입 ... 송유관·가스관 건설도

러시아가 시베리아산 원유를 태평양을 통해 수출하기 위해 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극동지역에서 원유를 가공하거나 선적할 대규모 설비공사가 잇달아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월12일 블라디보스토크 한국 총영사관과 KOTRA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 등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와 국영 석유기업인 Rosneft는 연해주의 나홋카 인근 엘리조로프에 총 140억달러를 투입해 연간 2000만톤의 원유를 가공 처리할 석유·화학단지를 건설키로 하고 9월 착공에 들어간다.

연해주 석유·화학단지는 700ha 부지에 2단계에 걸쳐 2013년과 2017년 각각 완공되며, 시베리아에서 송유관을 통해 수송된 원유를 가공해 석유제품을 만든 후 내수는 물론 수출까지 한다는 계획이다.

또 송유관을 통해 수송된 시베리아산 원유를 태평양 연안국가로 직접 수출하기 위한 원유선적 터미널도 건설하고 있다.

2020년까지 코즈미노 원유선적 터미널을 연간 8000만톤으로 늘려 아·태지역 원유 수출 비중을 현재 3.8%에서 30%까지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연해주 파르티잔스크에는 2012년까지 발전소와 변전소 등이 포함된 대규모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극동 캄차트카에서는 채굴한 가스를 수송하기 위한 총 520km의 가스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6/12>